



4면

수소산업 미래인재 양성 '맞손'

2025년 2월 4일 화요일 (음 1월 7일)

제3674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 도민과 함께 전진하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군 연두방문을 시작한 3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전북의 꿈 2036하계올림픽 유치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전주 숙원사업 함께 도전”

김관영 도지사 2025년 시·군 방문 - 전주

새해 맞아 도내 시·군 중 처음으로 전주 찾아 비전 공유
MICE 복합단지, 완주-전주 통합 추진 등 진솔한 대화 나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5년 새해를 맞아 도내 14개 시군 중 처음으로 전주시를 찾아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전주시는 3일 김관영 지사가 '함께 성공, 함께 혁신, 새로운 전북'을 슬로건으로 전북도정과 전주시정을 공유하기 위해 전주시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주지역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및 전주시의원들과의 환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김 지사는 이날 전주시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2025년도 전주시 운영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 및 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는 현재 전력을 다하고 있는 빠르고 강력한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전주 대변역의 마중물인 MICE복합단지 조성 계획과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완주·전주 통합 추진 등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함께 풀어나갈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내용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어 김 지사는 전주시민과 전주시 직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강당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도정 철학을 공유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날 특강을 통해 도정 철학과 주요 사업들을 공유하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의 당위성과 도전의의를 밝히기도 했다. 또 민생현장에서 도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민생행보를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이날 현장에서는 △전주 MICE 복합단지에 들어올 예정인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완주·전주 통합 추진 △글로벌 농생

명 도시에서의 전주의 역할 △문화산업 진흥지구 확대 지정 등 전주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김 지사의 전주시 방문은 사회단체장들과 만찬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2025년 전북은 전주와 함께 도전해야 할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이 있고, 그것을 같이 성공시킨다면 전북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과 전주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를 방문해 전북과 전주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해주신 김관영 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 전주가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대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尹 '내란 수괴 혐의'
첫 형사재판 20일

법원, 공판준비기일 지정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이 이날 말 시작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뉴시스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전용태 전북자치도의원 발의... 직업계고 재학생 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직업교육 활성화와 조례 시행으로 직업계고 취업을 향상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용태 도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12월 6일 시행된 이 조례는 △직업교육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 실행 △직업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직업교육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직업계고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직업교육 발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 학과 운영과 학생 취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직업계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북직업교육박람회 개최도 가능해졌다.

/장은성 기자

특히 이 조례는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직업계고 졸업생(졸업 후 1년 이내)과 교원, 대학, 기업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올해 10대 핵심과제 중 '특성화고 취업 지원 확대'와 '진로·진학 지원 체계 강화' 등 직업계고 관련 과제를 2개 포함시켰다.

전용태 도의원은 "이 조례가 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직업교육 활성화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직업계고 학생이 취업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는 직업교육 활성화와 사업의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 및 취업 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도, 지원 대상 질환 1338개로 확대... 중위소득 140%까지 완화
진단서 기준 완화, 우편·팩스 신청 허용... 환자 편의성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넓히겠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이상각화증, 손발바닥 농포증 등 66개 질환이 추가돼 총 1,338개로 늘어난다. 또한, 기존 소득 기준(성인 120%, 소아 130% 미만)을 연령에 상관없이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상 '주상병'에 해당하는 질환명만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주·부상병 구분없이 최종진단명으로 지원가능하도록 개선됐고,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서면(우편·팩스) 신청도 허용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도내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희귀질환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이번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건강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자연특별사무주 여행문의 1899-8687 <https://tour.muju.go.kr>